

도·전기안전공사·기업은행, 중기 지원 협약

운영자금 지원... 전기안전공사 50억원 사업비 무이자 예탁·기업은행 100억원 자금 조성

전북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IBK 기업은행과 지난 1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신준범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안심성장자금(J-Bro 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전북 혁신도시에 분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안심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각종 재해·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저리로 용자를 지원받아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2028년까지 총 50억원



지난 15일 전북도청 청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안심성장자금(J-Bro 펀드) 지원'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을 '기업은행'에 무이자로 예탁할 계획이며, '공사'가 '은행'에 맡긴 예탁금을 기반으로 2배의 재원을 마련해 대출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

이다. 지원대상은 전북도와 공사, 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중,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대상은 시설 노후

화로 인해 시설개선 등 운영자금에 필요한 기업이다.

도는 선정된 기업이 기업은행을 통해 운영자금 대출 시 2.25%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활한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IBK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aT, K-푸드 메타버스 마케팅 결실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디지털 광고대상 금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K-푸드 홍보마케팅으로 '2023년 웹어워드 코리아' 메타버스 부문 대상과 '2023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KODAF)' 글로벌 캠페인 부문 금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혁신적인 웹·모바일 서비스 등에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우수 웹 평가 시상식이며,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KODAF, Korean Digital Advertising Festival)'은 디지털 광고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매년 다양한 디지털 광고 영역에서 창의적인 광고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세계적인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K-푸드 시뮬레이터' 체험형 게임을 구축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K-푸드를 재미있고 참신한 방법으로 홍보 마케팅한 공로로 2개 대회 시상식을 휩쓸는 쾌거를 이뤘다. /김재훈 기자

'로블록스(Roblox)'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23% 성장한 세계적인 체험형 게임플랫폼으로, 하루 사용자 수가 5600만 명을 넘어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물론 MZ세대 젊은이까지 폭넓은 이용자를 자랑한다. 'K-푸드 시뮬레이터'에는 △인삼·쌀·유자 등 K-푸드 식재료를 생산해 수확하는 'K-팜' △김치·생류 등 K-푸드를 구매하는 'K-스트리트' △K-푸드를 요리해 판매하는 'K-레스토랑' 등 3개 공간에서 식재료 생산부터 수확, 구매, 요리, 판매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시작한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72만 명을 돌파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농협, 2023년 하반기 사업 설명회 개최

농협과 조합원 간, 밀착 소통시간 나눔



전주농협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지난 14~15일,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의 2023년 하반기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지난 14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약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농협의 2023년 하반기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신용·경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원들에게 2024년에 새롭게 실시할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농협과 조합원 간에 서로 밀착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또한, 임인규 조합장은 전주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조합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농협 사업을 적극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조합원들께서 '농협사업 전 이용 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역설하였다.

임인규 조합장은 "민주적인 축제가 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임원 등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조합원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변화가 진정으로 농협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주농협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과 대의원들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정관을 시행하고 있다. /김익기 기자

농업·기업 연계강화 성과 공유

바이오진흥원, 농업 생산자단체·식품기업 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5일,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의 사업성과 공유 등 위한 교류회를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은 농산물 계약재배를 매개로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식품기업의 고품질 농산물 수급으로 농업과 기업 간 상생 및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은 도내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원료공급 및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수혜기업 87개소, 3,446농가와 함께 628억원의 거래금액 성과를 거뒀다. /김익기 기자



전북도와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의 사업성과 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도내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전북도, 바이오진흥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금년도 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추진주체 간 교류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익기 기자

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운영협의회 개최... 제도 안내·애로사항 해소 등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통합환경관리 허가 사업장 58개소가 참여하는 '전북지역 통합환경관리 민·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멘토링 그룹을 구성해 통합환경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소통 등을 위해 구성한 논의기구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매년 참여 사업장을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와 관련하여 통합관리사업장에서 고용하여야 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2024년 그룹별 멘토링 운영계획 논의 및 환경관리현장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하여 사업장 지원방안과 제도개선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김익기 기자

소병훈 환경관리과장은 "통합환경관리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 자율적인 통합환경사업장 환경관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김익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